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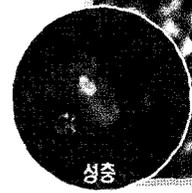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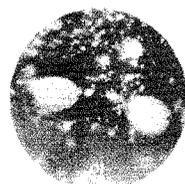
고추(1)



■ 이관석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차별지용어

응애아강 먼지응애과. 크기가 매우 작아 발견하기 어려운 해충이다. 알은 흰색의 동그란 돌기가 열 지어 돌아나있는 특이한 모양으로 암컷성충은 신초부위나 잎 뒷면, 입자루 부위에 무질서하게 낳는다. 유충은 반투명한 유백색이고 3자리면서 몸이 팽창하여 암컷 성충과 비슷한 모양을 한다. 암컷성충은 0.2mm의 납작한 장타원형의 담갈색이며, 수컷은 약간 작고 육각형 모양의 황갈색이다. 피해는 가해초기 성장점 부위의 어린잎에 주름이 생기고 잎의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오그라들며 기형이 되며, 잎뒷면은 기름비른 것처럼 광택이 나며 갈색이 짙어진다. 심하게 피해 받은 잎은 주로 가장자리가 뒤로 말리면서 뺏뺏해지는 증상을 보여 바이러스 병에 의한 피해증상과 혼동하기 쉽다.



복숭아혹진딧물_유시성충 복숭아혹진딧물_무시성충 목화진딧물_무시성충

복숭아혹진딧물

매미목 진딧물과. 무시성충은 1.8-2.5mm 정도로서 연한 황색, 녹황색, 녹색, 분홍색, 갈색 등을 띠지만 때로는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것도 있다. 뿔판 중앙부가 약간 팽대하나 끝부분은 볼록한 편이며, 끝부분에 테두리와 테두리 띠가 있다. 약충, 성충이 모두 기주식물의 잎 뒷면에서 집단으로 가해를 하여 변색, 위축증상을 일으키며, 배설한 감로에 의해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간접적으로 각종 식물바이러스를 매개하여 바이러스병을 일으킨다. 복숭아혹진딧물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목화진딧물과 혼재하여 피해를 주기도 한다.

꽃노랑총채벌레



매개 바이러스(TSWV)

총채벌레목 총채벌레과. 암컷 성충의 몸길이는 1.4-1.7mm이다. 몸색깔은 밝은 황색이고 보통 배의 각 마디 중앙에 갈색반점을 가지고 있다. 흘눈앞자모는 2쌍이고 흘눈사이자모는 매우 길다. 겹눈 뒤의 안쪽 4번째 자모의 길이는 흘눈사이자모의 2/3정도 매우 길다. 암컷 성충은 식물 조직 속에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은 식물조직을 흡즙하면서 2령을 경과하며 노숙유충은 땅 속에서 전용, 용기간을 거쳐 성충이 된다. 특히 꽃을 선호하기 때문에 꽃과 열매에서 피해가 심하다. 피해 받은 새순은 흡즙한 부위가 갈색반점이 나타나고 점차 자라면서 뒤틀려 결국 잎이 기형된다. 열매에서의 피해는 주로 꽃잎이 둘러싸인 부분에서 생기며, 보통 갈색의 굵은 자국이 생기지만 심하면 한쪽으로 구부러지는 곡파현상을 일으킨다. 최근 국내에서 발견된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를 매개하여 심각한 피해를 준다.

대만총채벌레 · 오이총채벌레

대만총채벌레는 우리나라 노지에서 가장 우점하는 토착 총채벌레로서 같은 속에 속하는 꽃노랑총채벌레와 함께 발생하여 피해를 준다. 크기는 꽃노랑총채벌레와 거의 비슷하나 몸색깔은 진한 갈색이다. 더듬이는 8마디이다. 겹눈 뒤의 안쪽 4번째 자모의 길이는 흘눈사이자모의 1/3정도로 짧다. 앞가슴긴자모는 총 5쌍이며, 뒷가슴등순판에 종상감각기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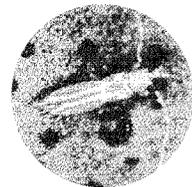
오이총채벌레는 외래 총채벌레로 몸색깔은 밝은 노랑색이고 크기는 작은 편이다. 더듬이는 7마디이고 앞가슴자모는 뒷모서리에 2쌍만 가진다. 뒷가슴등순판 구물무늬는 뒤쪽으로 갈수록 안으로 모아지며 1쌍의 종상감각기가 있다. 꽃을 선호하는 꽃노랑총채벌레와 대만총채벌레와 달리 잎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인 생활사와 피해증상은 꽃노랑총채벌레와 유사하다. Y



오이총채벌레 고딕벌레 피해



대만총채벌레 성충



오이총채벌레 성충